

제4차 학생공개토론회 '학생은 이런 강의를 원한다'를 마치며

홍준기*

처음 연구계획서를 들고 CTL(교수학습개발센터)을 찾아갈 때까지도, 필자는 CTL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몰랐다. 보고서에 대한 첨삭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 이번 공개토론회의 주제였던 '학부 강의'에 대해서도 막연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처음부터 뚜렷한 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초반 주제 선정 과정에서 다른 팀원들과 의논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가 막바지까지 많은 혼선을 빚게 되었던 점이 무척 안타까웠다. 기존에 많은 학생들이 의문을 가지는 강의 평가의 실효성 문제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주제를 다뤄봤더라면 흥미를 끄는 주제가 되었겠지만, 우리는 강의 전반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워낙 넓은 주제였기 때문에 연구 과정이 수월하지 못했고, 단순히 정보 수집에 그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다.

본격적인 연구 과정에 들어가면서 언론사(우리 팀은 「서울대저널」 기자들로 구성되었다)로서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사실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우리로서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해야 했고, 학생들에게 강의 전반에 대한 질문을 담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설문지 문항을 짜고,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완성본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방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재학중.

학 기간 중에 학교에서 학부생들을 찾아 설문을 받는 일도 쉽지 않았다. 설문조사를 마친 후에도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지만, 우리 팀이 수행했던 것과 유사한 설문조사를 본부나 CTL에서 대규모로, 그리고 보다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강의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단기간에 수행하는 연구의 경우 엄연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기관에서 직접 학부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수집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설문조사를 주로 하여 뼈대를 짜고, 설문지를 통해 선정된 우수 강의 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덧붙여서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다른 두 팀의 보고서에 비해서 잘 짜여진 보고서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공개토론회의 주제에 부합하는 결론을 얻었던 것 같다.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자의 특성이 학생들의 강의 선호도에 꽤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강의의 질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강의 환경의 개선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강의자들이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 비록 이번 연구 주제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강의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 또한 시급히 요구된다. 학생들이 좀더 성실하게 강의 평가에 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의자가 수업을 개선해나간다면 수요자 중심의 강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내부 발표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수정한 후, 완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게이오기주쿠대학 학생들과 토론을 할 때 사용할 프레젠테이션을 짜야 했다. 많은 분량은 아니었지만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단어들을 영어로 옮겨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 팀의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할 필자로서는 더 긴장될 수밖에 없었다. 새벽이 될 때까지도 번역 작업이 완료되지 못했고,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발표문도 제때 준비하지 못해서 제대로 연습조차 할 수 없었다.

회상 회의가 시작되고, 서울대와 게이오기주쿠대학 학생들이 서로 한

팀씩 번갈아가면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발표를 했다. 화상 회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일본의 학생들과 우리 쪽 학생들이 학부 강의에 대해 가지는 문제의식이 흡사하다는 점이었다. 분명 학제나 대학의 분위기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국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부 강의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에 대한 생각이 매우 비슷했다. 사실 회의에 들어가면서 게이오기주쿠대학 학생들의 학부 강의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많이 다르고 회의가 상당히 피상적으로 흘러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학부 강의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필자는 학교 본부나 교수님들의 권위적인 태도가 학부 강의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게이오기주쿠대학의 경우에도 서울대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몇몇 뜻있는 교수님들이 자체적으로 수업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문제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서울대가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서울대에서도 CTL을 통해서 강의 개선과 학습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다른 학교 주체들이 이런 CTL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구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화상 회의를 마칠 때까지의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번에 이뤄진 연구와 화상 회의가 강의 개선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은 보상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학생 중심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누적된 정보들을 통해서 본부가 좀더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이 직접 조사·연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형식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려는 노력 역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현재 이뤄지는 작은 노력들이 점차 축적되어 서울대에서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강의’가 자리 잡을 날을 기대해본다. 